

‘좌완 필승조’ 광도규 돌아온다…KIA 불펜 활력 주목



퓨처스 2경기 실전 점검 마쳐…“몸 상태 판단 후 콜업”
24경기 ERA 2.12·7홀드 맹활약…뒀문 버팀목 기대

KIA타이거즈 불펜에 반가운 지원군이 돌아온다. 부상 전 필승조의 한 축으로 맹활약했던 좌완 광도규가 복귀 준비를 마치면서 최근 흔들리고 있는 KIA 뒀문에도 다시 힘이 실릴 전망이다.

광도규는 지난 24일 한평-기아펠린저스필드에서 열린 삼성라이온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등판해 1이닝 무피안타 무사사구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이날은 투수 5개를 비롯해 커브와 커터, 체인지업을 각각 3개씩 섞어 총 14개의 공을 던졌다. 패스트볼 최고 구속은 시속 142km를 기록했다. 세 타자를 깔끔하게 처리하며 1군 복귀를 위한 마지막 실전 점검을 마쳤다.

앞서 지난 22일 삼성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는 부상 이후 처음 실전에 나서 1이닝 2피안타 2탈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첫 등판에서 실전 감각을 확인한 뒤 두 번째 경기에서는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이 없다면 1군 합류도 눈앞이다. 이범호 KIA 감독은 광도규의 몸 상태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곧 1군에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감독은 25일 롯데자이언츠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광)도규가 어제 투구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던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오늘과 내일 몸 상태를 체크해서 올릴 계획이다”고 전했다.

광도규의 합류가 더욱 반가운 이유는 최근 KIA 불펜이 좀처럼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KIA 불펜은 지난주 평균자책점 6.50으로 흔들렸다. 특히 조상우와 김범수, 최지민 등이 기대만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경기 후반 운영에도 어려움이 이어졌다. 마무리 이의리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한 이닝을 맡길 카드가 부족했다.

실제 지난 23일 키움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는 불펜 불안이 뼈아픈 역전패로 이어졌다. KIA는 5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마무리 이의리가 끝내기 만루홈런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단순한 1패를 넘어 불펜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패배였다.

이에 이 감독은 “(이)의리 올리는 타이밍에서 내가 미스했다. 의리는 충분히 잘 던져줬고,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선수들은 끝나고 나면 그 경기를 잊어버려야 하는 게 맞다. 코칭스태프가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안 나오도록 남아 있는 경기에서는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돌아오는 광도규는 불펜 운영에 도움을 줘줄 카드다.

지난해 5월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광도규는 긴 재활을 거쳐 지난 5월 1군에 돌아왔다. 복귀 직후에는 부담이 적은 상황에서 차근차근 감각을 끌어올렸고, 이후 필승조까지 올라섰다.

올 시즌 성적은 24경기 1승 7홀드 평균자책점 2.12 17이닝 동안 삼진 18개를 잡아내며 위력적인 구위를 과시했다. 활약이 이어지면서 이 감독은 후반기 시작

과 함께 광도규와 조상우를 마무리로 번갈아 투입하는 방안까지 구상했다. 그러나 광도규가 지난달 24일 키움전 도중 왼쪽 내전근을 다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광도규가 빠진 사이 이의리가 마무리로 변신해 뒀문을 지켰다. 하지만 선발에서 불펜으로 이동한 데 이어 마무리 중책까지 맡은 이의리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광도규의 복귀는 이의리의 짐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장 마무리 보직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이의리를 중심으로 광도규를 경기 후반 승부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아시안게임 변수가 있느냐 전상현과 최근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 성영탁까지 힘을 보탠다면 필승조의 선택지도 한층 다양해진다.

특히 상대 타선의 좌타 중심타자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광도규의 존재감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위기에 서도 공격적인 승부를 피하지 않는 데다 경기 후반 상대 타선의 흐름을 끊어낼 수 있는 카드다.

물론 복귀와 동시에 부상 이전처럼 연투와 필승 상황을 모두 책임지기는 쉽지 않다. 긴 재활 끝에 복귀한 시즌에 또 한 번 부상을 겪었던 만큼 일정 기간 몸 상태를 살피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몇 차례 실전을 통해 감각을 되찾는다면 다시 필승조의 핵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치열한 순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KIA에 이제부터는 한 경기, 한 경기의 무게가 더욱 커진다. 그만큼 승부처에서 버텨줄 불펜의 힘도 중요하다. 부상 전 가장 믿음직한 불펜 카드 가운데 하나였던 광도규의 귀환이 흔들리는 KIA 뒀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서 한·일 양궁 꿈나무 ‘우정의 활시위’

28일까지 청소년 선수·지도자 등 60여명 참가
합동 훈련·원포인트 레슨·문화 탐방 등 교류

프로야구 잔여 일정 확정

10월 7일 정규시즌 종료

광주와 일본의 양궁 꿈나무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의 활시위를 당긴다.

광주시체육회는 한·일 양궁 청소년 선수들의 우호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2026 한일 종목 지역 간 양궁 스포츠교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류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 국제양궁장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원에서 진행된다. 양궁 청소년 선수와 지도자 등 60여명이 참가해 양궁을 매개로 기량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지난 3월 공모한 ‘2026 한일 종목 지역 간 청소년 스포츠교류’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광주시체육회는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

광주와 일본 청소년 양궁 선수들은 교류 기간 함께 훈련하고 친선경기를 펼쳐며 실전 경험을 쌓는다. 다양한 지역 문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양궁 선수 간 우대감을 높일 예정이다.

교류의 연속성도 눈길을 끈다.

사업 수행단체인 광주시양궁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일본 측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22년



‘2026 한일 종목 지역 간 양궁 스포츠교류’에 참가한 한·일 청소년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에는 공식 협약을 체결했으며, 양국을 오가며 꾸준히 청소년 선수들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구성됐다. 합동훈련과 친선경기를 비롯해 기보배 교수 등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레슨이 진행된다. 지역 문화탐방과 양궁 세미나 등을 통해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양궁 인프라와 국제대회 운영 경험을 갖춘 광주는 이번 교류를 통해 지역 양궁의 경쟁력을 알리는 데에도 나선다. 청소년 선수들의 국제 경험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 스포츠교류의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광주의 효자 종목인

양궁을 통해 양궁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성장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스포츠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선수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광주체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 전국체전 대진 ‘청신호’…종합순위 반등 노린다

단체 18개 개인전 31개 부전승 확보
2888점 기대…‘전남’ 마지막 체전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남 선수단이 대진추첨에서 다수의 부전승을 확보하며 종합순위 반등을 위한 유리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제주도체육회관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시·도대표자회의 대진추첨 결과를 분석한 결과, 단체전 12개 종목 18개 종별과 개인전 9개 종목 31개 종별·체급에서 부전승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진추첨을 통해 부전승 득점으로만 2888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9개 부전승을 확보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유리한 대진이



최근 전남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회원종목단체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체육회

라는 게 전남체육회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종합 14위에 머물렀던 전남 선수단의 순위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전에는 전남 선수

단 1701명이 출전한다.

전체 50개 종목 201개 종별 가운데 수중·핀수영을 제외한 49개 종목 179개 종별에서 경쟁을 펼친다.

이번 대진추첨은 28개 종목 417개 종별·체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남은 단체전 71개 종별과 개인전 288개 체급 등 총 359개 종별·체급에 출전한다.

단체 종목의 대진이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검도와 배드민턴, 족구, 축구, 하키 등에서 무난한 대진을 받아 다득점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전남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에서도 기대감이 높다. 레슬링과 복싱, 유도, 태권도, 택견 등 투기 종목 역시 전반적으로 무난한 대진을 받아 메달 획득과 다득점에 힘을 보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국체전은 전남 선수단에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과 광주가 각각의 이름을 걸고 출전하는 마지막 전국체전이기 때문이다.

전남체육회는 지난해 종합 14위의 아쉬움을 씻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남은 기간 선수들의 경기력 극대화하고 사기 진작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80년 동안 이어온 전남체육의 역사와 경쟁력을 마지막 전국체전 무대에서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올 시즌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오는 10월 7일 막을 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2026 신한 SOL KBO리그 정규시즌 잔여 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편성된 경기는 미편성 45경기와 우천 선언 등으로 재편성이 필요한 60경기를 더한 총 105경기다.

잔여 일정은 오는 10월 7일까지 진행된다.

경기 개시 시간도 시기별로 달라진다. 9월 1일부터 14일까지 평일 경기는 오후 6시30분,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5시에 시작한다. 9월 15일 이후에는 평일 오후 6시30분, 토요일 오후 5시, 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에 경기가 열린다.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이동편의를 고려해 모든 경기가 오후 5시에 시작한다.

우천 취소 경기의 재편성 기준도 마련됐다.

8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취소되는 경기는 우선 발표된 일정의 예비일에 편성한다. 예비일이 없고 9월 29일 이후 동일 대진이 있다면 해당 대진의 두 번째 날 더블헤더로 치른다. 동일 대진이 없으면 추후 편성한다.

9월 29일 이후 취소되는 경기 역시 예비일 편성이 우선이다. 예비일이 없을 경우 다음 날 동일 대진이면 더블헤더를 치르고, 동일 대진이 아니면 동일 대진 두 번째 날 더블헤더 또는 추후 편성 순으로 일정을 조정한다.

다만 2026 아시안게임 기간에는 더블헤더를 편성하지 않는다. 더블헤더는 9월 29일부터 가능해 10월 5일까지는 팀당 최대 1회만 치를 수 있다.

취소 경기를 예비일이나 더블헤더로 편성할 경우 최대 9연전까지 가능하다.

더블헤더는 1·2차전 모두 9이닝까지만 진행된다. 더블헤더 예정일에 한 경기만 열리는 경우에도 연장전 없이 9이닝까지만 치른다.

1차전은 평일 오후 3시,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2차전은 평일 오후 6시30분, 토·일요일과 공휴일 오후 5시에 열린다. 1차전 종료가 늦어지면 최소 40분의 간격을 두고 2차전을 진행한다.

정규시즌 막판 우천 취소 경기의 경우 포스트시즌 일정과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송하중 기자